

# ① 농어촌 지역구 감소폭 줄이기 '특별선거구' 도입 등 검토

## 엮히고 설킨 총선 선거구 확정 '4대 관전 포인트'

- ② 영·호남 4석씩...균형 맞추는 방안 유력
- ③ 국회, 확정위 안 거부 재확정 요구할 듯
- ④ 비례 축소·의원 정수 확대 카드 만지작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확정위)가 내년 4월 총선의 선거구 확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시한이 11일로 이를 남은 가운데 확정위는 물론 여야 정치권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과 농어촌, 영·호남의 의석수 조정 문제 등으로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구 얼마나 줄까=이번 선거구 확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수도권 증가-농어촌 감소'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2대 1 조정' 결정으로 수도권과 도시의 선거구는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큰 반면 농어촌에서 최대 13석이 줄 수

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확정위에서는 인구 상·하한선 설정 방식을 변경하고 자치 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의 예외를 일부 허용, 도시의 의석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그 만큼을 농어촌에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개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획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영·호남 균형 맞추나=전통적으로 새누리당이 강한 영남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강한 호남에서 줄어드는 의석수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점도 민감한 부분이다. 확정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데

에는 '24석 시뮬레이션 결과', 영남은 3석(경북-2석, 경남-1석), 호남은 5석(전북-2석, 광주-1석, 전남-2석)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 때문이다. 따라서 확정위는 영남과 호남을 각각 4석씩 줄도록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영남은 경북을 -2석이 아닌 -3석으로 잠거나 혹은 경북을 -2석으로 두고 부산을 -1석으로 만드는 방안이 가능하며, 호남에서는 전남이 -2석이 아니라 -1석으로 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확정위 안' 국회서 거부하나=확정위의 안이 국회에서 한번에 통과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정치권에서는 벌써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한 차례에 한해 거부할 수 있는 '재확정 요구 권한'을 사용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개혁위 관계자는 "정개혁위에서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아 하지 않겠느냐"며 "정치권이 확정위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쥐어 맞춤형으로 확정안을 바꿔오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농어촌 의석수 감소 문제가 재점화돼 '농어촌특별선거구' 논의가 다

시 불붙을 가능성도 있다. 여당 일각에선 농어촌특별선거구를 만들면 권역별로 7개나 생겨야 하고, 또 어디에 배정할지를 놓고 더 큰 싸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일부 손질을 가해 1~2개의 특별선거구만 만드는 아이디어도 거론된다.

◇의원정수 및 지역구-비례 비율은=선거구 확정안이 지체되는 것은 '의원정수 300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의원정수를 소폭 증원하거나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안이 재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다시 '의원정수 소폭 증원' 카드를 꺼내 들고 있어 주목된다. 새누리당의 경우는 '지역구 수를 지금보다 13석 늘려 259개로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확정위 관계자는 "결국 여야가 각자의 입장을 절충해서 지역구를 한자릿수 범위에서 더 늘리고, 그 방법을 비례대표 축소로 달성할지 의원정수를 300명에서 소폭 늘리는 방법으로 달성한 지 남은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대년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새정치 "의원정수 1% 늘려 농어촌 지역구 감소폭 줄이자"

### 의원 303명까지 확대

### 인구 상·하한선 소폭 조정도

### 새누리는 부정적 입장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20대 총선 선거구 확정과 관련,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최대 303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여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한 가운데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소폭 조정,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10일 "선거구 확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마치고 복수의 야당안을 마련했다"며 "여기에는 의원정수를 1% 늘리는 (303석)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지역구 선거구수가 현재 246개에서 249개로 늘어나면서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고 비례대표 의원수도 현재대로 54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는데다 새누리당도 받아들일 수 없

다는 입장이어서 현실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새정치연합은 분구 또는 통합을 결정짓는 기준인 선거구 인구상·하한선을 현재 기준보다 올려서 적용, 수도권 지역 선거구의 분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내에서는 현재 지역구 선거구수 246개를 유지할 때 선거구 인구 상한(27만8945명)·하한(13만9473명) 기준에서 2000~3000명 가량을 올리면 줄어드는 농어촌 의석수가 9

개에서 4~5개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은 자치 구·시·군 일부 분할에 일부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개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획정)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정수 1% 조정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

했다. 농어촌 배려를 위해 지역구 수를 늘리기로 한다면, 의원정수는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따라서 그만큼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최근 비공개로 가진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야 간사 회동에서도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이 이같은 뜻을 내비쳤으나 여당에서 '받을 수 있는 안이 아니다'라고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정의화 국회의장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 선거구획정 조율

### 국감 이후 국회 일정도 논의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만나 내년 총선 선거구 확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정 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의 확정안 국회 제출

시한(10월13일)을 하루 앞두고 새누리당 원내총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불러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여야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번 회동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새정치연합 김태연 의원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는 확정위가 법정 제출시한

을 넘길 경우에 대비해 국회 차원의 대응 방침을 논의하는 한편 국감 이후 정기국회 일정과 의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확정위는 지난 8일 오후부터 9일 새벽까지 마라톤 회의를 한 데 이어 10~11일 다시 회의를 열어 마지막 논의를 이어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HNT 하나투어**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총장점  
(동구 불로동 96-7)

문의전화 062) 228-1199

### 하나허니문 인기 상품

**개주월 [세미팩] [직항이동] 프라하 6일/7일**

총상품가 1,940,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 + 기사경비 EUR12~, 선택경비 있음

출발일 : 9월 ~ 16년 3월 매주 일/월요일

특 전 : 인천 → 프라하 직항 이동  
프라하 스냅 촬영 포함/일일 데이투어 포함  
공항 미팅, 샌딩 서비스 포함

**개주월 [프리틀] 이태리(로마/피렌체/베니스) 8일**

총상품가 2,144,600원~

현지지불 ▶ 가이드 + 기사경비 없음, 선택경비 있음

출발일 : 9월 ~ 16년 3월 매주 토/일요일

특 전 : 예식 후 당일 출발 가능  
로마 → 피렌체 → 베네치아 초고속 열차티켓 포함  
시내 중심의 준특급 호텔 숙박

### 하나허니문 추천 상품

**클래식 [스타가이드] 파리(1일관광)/이태리(더물+피렌체) 8일**

총상품가 2,618,700원~

현지지불 ▶ 가이드 + 기사경비 포함, 선택 경비 있음

출발일 : 10월 ~ 12월 매주 일요일

특 전 : 파리-로마 항공 이동  
유럽 아울렛 더물+피렌체 가이드 관광  
중화타운스 타워 56층 코스 요리, 마장골레(해물 특식)with 와인

**클래식 [반얀트리] 세이셸 6일/7일**

총상품가 3,453,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없음

출발일 : 9월 ~ 16년 3월 매주 토/일/월요일

특 전 : 오션뷰풀빌라 4박 숙박 / 공항 → 리조트 간 미팅,샌딩 서비스  
삼페인 1방, 디럭스 과일 바구니, 로맨틱 발라 셋업, 기념 선물 제공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동향, 공항이용료, 여행자보험, 관광상품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된다. ■여행상품은 미착원. ■유류동향: 유류동향은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변경될 경우, 항공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가이드/기사: 가이드/기사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여행상품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하십시오. ■여행상품: 여행상품에 참가가능하여 그에 따른 선택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 미결제에 의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세팅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하십시오.] ■부속:이전 시점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지리 사변 동의를 받습니다. ■관광사립사 등록번호 제26004-1993-호 (종로구청)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지하1층 ■ 최소 출항인원 10명 /기초/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상교통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문의전화: Tel 1577-1233ARS (내선번호 09번) ■영업:보통보통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에 여행상품가격에는 유류동향과 재산관리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사항이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사항은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의 금액 및 선택사항과 1인당 시 대차량당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을 참조하십시오. ■여행 유의: ■여행 지체: ■합수 권고: ■여행 금지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 www.HanaTour.com